

1. 밑줄 그은 '홍수 아이'가 살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충북대 박물관은 충북 청원군 홍수굴에서 발견된 어린이(일명 홍수 아이) 뼈를 원형에 가깝게 청동 등신상으로 복원하여 공개하였다. 홍수 아이는 약 4만 년 전 인류 화석으로 얼굴뿐 아니라 온몸의 뼈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굴되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고고학 사상 처음으로 전신상을 복원한 것이다. 홍수 아이는 키가 110~120cm 가량으로, 5~6세 정도로 추정된다. - ○○ 신문 -



- ① 가락바퀴, 뼈바늘을 사용하였다.
- ② 무리를 지어 이동 생활을 하였다.
- ③ 반달 돌칼로 곡식의 이삭을 잘랐다.
- ④ 사람이 죽으면 독에 넣어 매장하였다.
- ⑤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원시 신앙을 믿었다.

정답 : ②

* 홍수아이와 구석기 시대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1976)에서, 남한 최초의 인골(홍수아이, 1983년 출토, 4만년 전 현생 인류)이 출토되었다.

①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 도구나 토기의 제작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구석기 시대에는 무리를 이루어 큰 사냥감을 찾아다니며 생활하였다. 무리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하였다.

③ 청동기 시기의 사람들은 돌도끼나 홈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등 농경을 더욱 발전시켰다

④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고,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생겨났는데, 여기에는 풍요로운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으뜸이었다.

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혼 숭배와 조상 숭배가 나타나고,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물과 연결시켜 그것을 숭배하는 토테미즘도 있었다.

2. 다음 대화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족 공동 묘의 풍습이 있었다.
- ②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③ 데릴사위제의 결혼 풍습이 있었다.
- ④ 가(加)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 ⑤ 천군이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

정답 : ④

* 초기 국가 부여

• 순장과 왕권의 미약을 통해 논쟁이 되고 있는 나라는 부여임을 알 수 있다

• 옛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 되어 오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여섯 가족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猪加), 구가(狗加), 대사(大使), 대사자(大使者), 사자(使者)가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① 골장제 혹은 세골장이라 불리는 옥저의 풍습이다

② 매년 10월에 동예에서 열렸던 제천행사이다

③ 서옥제라고도 하는 고구려의 풍습이다

⑤ 제정이 분리되어 있었던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3. 다음 법을 시행한 나라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유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 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죄를 면하여 보통 백성이 되어도 습속에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 「한서」 -

< 보기 >



ㄱ.



ㄴ.



ㄷ.



ㄹ.

① ㄱ, ㄴ

④ ㄴ, ㄹ

② ㄱ, ㄷ

⑤ ㄷ, ㄹ

③ ㄴ, ㄷ

정답 : ①

* 고조선의 세력범위와 관련된 유물, 유적

• 제시문은 한서에 실려 있는 고조선의 8조법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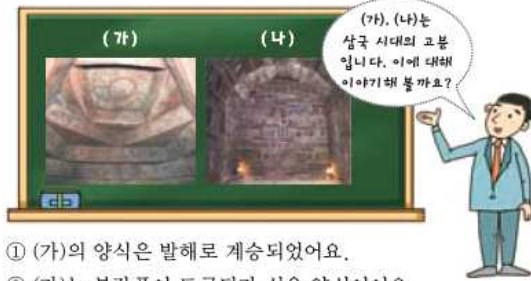
• 고조선의 세력범위는 ㉠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 비파형동검(요녕식 동검),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거울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ㄷ. 명도전 -철기

ㄹ. 붉은간토기 -청동기

4.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의 양식은 발해로 계승되었어요.
- ② (가)는 부장품이 도굴되기 쉬운 양식이에요.
- ③ (나)는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보여 주고 있어요.
- ④ (나)에서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지석이 나왔어요.
- ⑤ (가), (나)는 모줄임 천장 구조를 하고 있어요.

정답 : ⑤

* 삼국시대의 고분 양식

(가)는 모줄임식 천장 (나) 무령왕릉(벽돌식 무덤)

• **모줄임식 천장**: 벽 위에 천장돌을 한두 단 내밀기쌓기를 한 다음 한 벽에서 옆벽에 걸치도록 돌을 비스듬하게 놓아 귀를 줄이면서 천장을 좁혀 올라가는 방법으로 고구려 문화권(발해 포함) 내에서만 발견된다.

• **무령왕릉**: 공주 송산리 고분군(宋山里古墳群)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 25대 무령왕(武寧王: 501~523)과 왕비의 벽돌식무덤

① 발해에도 도읍지를 중심으로 많은 무덤이 남아 있다. 이 중에서 정혜 공주묘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모줄임 천장 구조가 고구려 고분과 닮았다.

② 이러한 무덤의 양식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널널한 공간으로 인해 부장품이 도굴되기 쉬운 양식이다

③ 웅진 시기의 고분은 굴식 돌방무덤 또는 널방을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바뀌었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무령왕릉이 유명하다.

④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무령왕릉 지석을 통해 알 수 있다

묘지(墓誌): 죽은 자의 생애와 가족 관계 등을 기록하여 관과 함께 묻은 유물이다. 돌에 기록하기도 하고, 석관에 기록한 것도 있으며, 조선 시대에는 백자로 만들기도 하였다.

5. 다음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 ②

* 고대의 여러 유물, 유적

• **중원 고구려비**: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에 위치한 고구려비 장수왕 69년(481)경에 고구려의 남하정책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① 백제에서도 금속 기술이 발달하였다. 4세기 후반(근초고왕 대)에 백제에서 만들어 일본에 보낸 칠지도는 강철로 만들고 금으로 글씨를 상감해 새겨 넣은 우수한 제품이다. 칠지도는 백제 제철 기술의 우수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③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④ 조선 후기 김정희가 고증한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 중 하나로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까지 진출하였음을 보여주는 비석이다.

⑤“...영락 10년(400) 경자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관군이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 광개토 대왕릉 비문 -

⑤ **호우명 그릇**: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 그릇 밑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 준다.

6. 다음은 어느 나라의 외교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파견 연도	사신
인안 9년	고인의
대흥 26년	왕심복
정력 5년	대창태
건흥 4년	왕문거

* 총 34회 파견 중 일부 정리



- ①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 ② 신라도를 개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 ③ 자기, 말, 모피 등을 주변국에 수출하였다.
- ④ 장문휴로 하여금 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다.
- ⑤ 천손 의식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정답 : ①

* 발해에 대하여

왼쪽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발해의 연호와 오른쪽 제시문의 부여, 고구려 계승을 통해 발해임을 알 수 있다

① 양나라는 남조에 위치하였던 수나라 이전의 국가로서 백제 무령왕 대에 수교하였다. * 관련 자료: 무령왕릉, 양직공도

② 발해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③ 발해는 목축이 발달하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는데, 말은 주요한 수출품이었다(술빈부의 말). 수렵도 활발해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되었다.

④ 무왕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또,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⑤ 무왕 대에 고려국을 표방하고, 유신을 단행하여 불교의 전륜성왕의 이념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도 천손임을 자라하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 대체로 모든 왕들이 일세일원, 즉 하나의 연호와 시호를 독자적으로 결정해 사용하였다(무왕 대의 인안, 대흥 등).

7. 다음 편지를 받는 인물에 관한 탐구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존경하는 장 대사님께

이 엔닌은 멀리서 인덕을 입사우고 우러러 받드는 마음
끝이 없습니다. 엔닌은 옛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당나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친한 몸이 다행하게도 장 대사님의
본원의 땅[적산 법화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제 만나
뵈울른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만 장 대사님을 경모하는
마음 더해 갈 뿐입니다. 삼가 글을 올려 안부를 어쭙옵
니다. 갖추지 못하옵고 삼가 올립니다.

개성 5년 2월 17일, 일본국 구법승 엔닌 올림

- ① 신라인의 해외 진출을 알아본다.
- ② 신라 말의 정치 상황을 분석한다.
- ③ 해상 세력의 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 ④ 고대 동아시아의 항해로를 살펴본다.
- ⑤ 고려 건국 과정에서의 활약상을 조사한다.

정답 : ⑤

* 신라 하대 해상 세력 장보고에 대하여

• 적산 법화원과 일본 승려 엔닌을 통해 장 대사는 장보고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적산 법화원 [赤山法華院]: 통일신라 흥덕왕(826~836) 때 장보고(張保臯)가 신라인 집단거주지였던 산동반도 적산촌(赤山村)에 세운 신라원(사찰) 중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다

•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져, 장보고는 신라 하대의 중앙의 지방 통제력 상실을 이용하여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무역 확대로 산동 반도와 양쯔 강 하류에 신라인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 신라인을 다스리는 신라소, 여관인 신라관, 절인 신라원이 만들어 졌다.

⑤ 장보고(?~846)는 신라 후기 사람이긴 하나 고려 건국(918)과는 관련이 없다

8. 가야 연맹의 어느 나라와 관련된 행사 포스터이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였다.
- ② 1세기 무렵 김수로에 의해 건국되었다.
- ③ 낙랑, 대방, 왜와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 ④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적으로 쇠퇴하였다.
- ⑤ 5세기 후반에는 소백산맥 서쪽까지 진출하였다.

정답 : ⑤

* 대가야(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에 대하여

• 애기 금동관: 1994년 왕릉전시관 건립 공사를 위한 부지 조성에 따라 발굴, 조사된 지산동 30호분의 출토 유물로, 세 개의 순장곽 가운데 남쪽 순장곽에서 소아 인골과 함께 출토되었다.

• 지산동 고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치소지(治所地)의 주 고분군이다. 피장자(被葬者)는 대가야의 최고 지배자인 왕을 위시하여 치소지에 살았던 유력층과 일반 주민 및 멸망 후의 주민으로 추정된다.

① 가야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했으므로 그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중앙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② 김수로가 세운 가야는 금관가야이다. 대가야를 세운 왕은 이진아시왕이다.

③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 대방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으나, 4세기 초부터 백제와 신라의 팽창에 밀려 전기 가야 연맹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④ 가야는 낙동강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신라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자,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를 견제하였다. 고구려가 왜군과 싸우는 신라를 돕기 위해 5만의 군대를 보내어 가야 지역을 공격해 오자, 금관가야는 큰 타격을 입어 맹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⑤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은 5세기 후반에 크게 성장하여 그 세력 범위를 소백 산맥 서쪽까지 확장시켰다. 또,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 교통하였으며, 고구려의 침입을 받은 신라를 백제와 함께 구원하기도 하였다.

9. 밑줄 그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신문왕 7년(687) - (가)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성덕왕 21년(722) - 백성들에게 (나)정전을 지급하였다.
- 경덕왕 16년(757) - 월봉을 없애고 (다)녹읍을 부활하였다.

— < 보 기 > —

- ㄱ. (가) - 토지 소유권이 지급되었다.
- ㄴ. (나) -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 ㄷ. (다) - 국학의 학생에게도 지급되었다.
- ㄹ. (가), (다) - 관리가 직접 조·용·조를 수취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③

* 통일신라기의 토지

• **관료전**: 신라 중대(中代)에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게 지급한 전지(田地)의 명칭. 관료전은 토지로부터 조세만 수취하고 사람들은 지배할 권한이 없었으며 관리는 관직에서 물러나면 관료전을 반납해야 했다.

• **정전**: 신라 성덕왕 21년(722)에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나라에서 나누어 주었던 토지로 왕토사상에 의거하여 나누어 주었다(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 **녹읍**: 국가에서 관료귀족에게 지급한 일정지역의 토지로서, 조세수취 외에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조·용·조 수취)

㉔에 관한 내용은 소성왕 원년(799)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0. 다음 기사의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2009년 ○○월 ○○일 ○○일보 제○○호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가)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판으로 된 사리 봉안 기록판과 금제 사리 향아리 등 유물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금판 앞뒷면에 194자로 새겨진 사리 봉안 기록에는 시주자의 신분이 무왕의 왕후이며, 좌평인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백제 서동 왕자(무왕)가 향가 '서동요'를 신라에 퍼뜨려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 공주와 결혼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다.



정답 : ④

* 백제 미륵사지 석탑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에 소재한 한국에 남아있는 석탑중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백제 무왕의 재위기간 중인 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소위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2009년 1월 14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보수·정비하다가 심주 상면 중앙의 사리공에서 금제 사리호, 금제사리 봉안기 등 사리장엄을 발견하였다.

- 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 ②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 ③ 감은사지 3층 석탑
- ⑤ 돌무지 무덤(서울 석촌동 백제고분)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불교 사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명주 굴산을 개창한 통효 대사는 이름은 범일이고 경주 김 씨였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술원이며 명주 도독까지 지냈다. …… 대종 5년 정월, 백담사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명주 도독 김공이 굴산사에 주석하기를 청했다. 늘어진 소나무로 도를 행하는 행랑을 삼고 평평한 바위로 참선하는 자리를 삼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이것이 스님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범일이 대답하기를, “부처가 간 길을 따라 하지 말라. 남이 한 대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하였다.
- 『조당집』 -

- ① 화엄 사상의 성립 배경을 분석한다.
- ② 승탑이 유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
- ③ 정토 신앙 운동이 전개된 과정을 알아본다.
- ④ 신라에서 불교식 왕명이 사용된 사례를 살펴본다.
- ⑤ 사원에 칠성각과 산신각이 건립된 이유를 조사한다.

정답 ②

* 신라 하대 선종(9C 이후)

신라 말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상도 바뀌어 불교의 새로운 종파인 선종이 크게 발전하였다. 교종이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여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며 발전한 데 비하여, 선종은 교리보다는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정신 수양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신라 말에 이르러 왕실보다도 지방 호족들이 선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지방의 호족들이 백성들을 포섭해 나가는 데 선종이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종은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였으므로, 호족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 신라 말에는 9산이 성립되었다.

• 범일(810~889): 이명은 통효대사. 통일신라시대의 승려로 선종 구산(禪宗九山) 가운데 사굴산파를 처음 열었다

- ① 의상(7C)의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은 대표적인 교종 문파이다.
- ②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 ③ 원효(7C)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정토종)의 길을 열었다.
- ④ 신라는 법흥왕~진덕여왕 대(5C~6C 전반)에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다.
- ⑤ 칠성각, 산신각의 건립은 외래 종교인 불교가 민간 신앙과 결합되어 토착화된 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12. 다음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더라도 우선 10여 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 2~3명의 관원을 두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 「고려사」 -

- ① 서경을 중시하여 천도를 추진하였다.
- ②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확립하였다.
- ③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학 교육 진흥에 힘썼다.
- ④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 세력을 억제하였다.
- ⑤ 연등회, 팔관회 등 불교 행사를 적극 장려하였다.

정답 : ③

* 최승로의 시무 28조와 성종의 개혁 정치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최승로의 시무 28조이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왕은 성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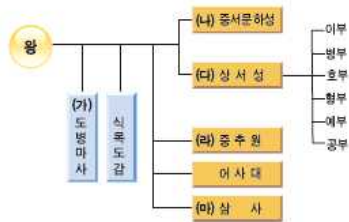
• 시무 28조: 982년(성종 1)에 “중앙관 5품 이상은 모두 봉사(封事)를 올려 현재 정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하라”는 성종의 명령이 있자,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으로서 현재에는 22조만이 전해지고 있다.

국방 문제, 불교 폐단, 엄격한 유교적 신분 질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중앙집권적 정치, 구제도의 개혁과 중국문물의 수용, 공역 균등과 관복의 제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 ① 정종에 대한 설명이다
- ② 현종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광종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시켰다.

* 연등회와 팔관회는 현종 때 부활하였다

13. 다음은 고려의 중앙 관제표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역사대 관리와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 ② (나) -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 합의 기구였다.
- ③ (다) -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 ④ (라) - 서경·봉박·간쟁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⑤ (마) -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정답 : ⑤

* 고려의 정치기구

고려의 통치 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하였다.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그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상서성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장관: 상서령).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삼사는 송과는 달리, 단순히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만 맡았다.

- **도병마사:** 중서문하성의 재신(2품 이상)과
중추원의 추신(2품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였다. 국방문제와 국가
 중요정책을 협의해서 결장하였다. 식목도감
 과 더불어 고려의 귀족합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①, ④ 대간의 역할과 기능: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된 대간에서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14. (가)~(마)는 대몽 항쟁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박서의 부대가 몽골군을 물리쳤다.
- ② (나) - 김윤후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③ (다) - 노균과 잡류가 몽골군과 싸워 이겼다.
- ④ (라) -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 버렸다.
- ⑤ (마) - 배중손이 삼별초의 항쟁을 지휘하였다.

정답 : ④

* 고려의 대몽 항쟁 지역

(가) 귀주: 1019년(고려 현종 11) 귀주대첩에서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을 물리친 곳이며, 1231년(고려 고종 19) 몽골군이 침입하였을 때 고려군이 병마사(兵馬使) 박서의 지휘로 격전을 치렀던 곳이다

(나) 용인(치인성):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고려시대의 성이다 몽골의 2차 침입 시기에 고려의 승장(僧將) 김윤후(金允侯)가 이 성에서 격전 끝에 살리타를 사살하여 승리로 이끈 곳이다

(다) 충주: 몽골의 5차 침입 시기에 노균과 잡류별초가 김윤후의 지휘 하에 몽고군과 맞서 싸워 격퇴 시킨 곳이다

(라) 대구: 고려 현종 때 판각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며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 [初雕大藏經]을 보관하고 있던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符仁寺)가 있었으며 이는 몽골의 2차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마) 진도: 삼별초의 항쟁(1270~1273): 배중손, 김통정, 강화도->진도->제주도

④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던 곳은 경주이며 이는 몽골의 3차침입시기에 소실되었다

15.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 ㄱ.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 ㄴ. 송과 육로를 통해 활발히 교역하였다.
- ㄷ.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관수품을 생산하였다.
- ㄹ. 설점수세계를 시행하여 광산 개발을 장려하였다.
- ㅁ. 은으로 활구(은병)라는 화폐를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 ③

* 고려의 불교 문화 유산

왼쪽의 유물은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오른쪽의 유물은 수월관음보살도

•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968년(광종 19)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최대의 석불입상 지역특색이 잘 드러난 것이 특색이다

• 수월 관음도(일본 대덕사 소재): 안정된 구도, 화려하면서도 온화한 화취, 동적인 화면 구성 등 고려 관음도를 대표할 만한 품격을 지닌 그림이다. 제작 시기는 경신사(가가미 신사) 관음도(1310년)와 근접해 있다고 보인다.

㉠ 농상집요: 고려 때 이암(1297~1364)이 원(元)나라로부터 수입한 농서(農書).

㉡ 고려는 해로를 통해 송과 활발히 교역하였다

㉢ 소: 광물과 수공업제품 등 특정 공납품을 생산하는 특수 행정구역이다

㉣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이다

㉤ 활구: 숙종 6년(1101)제작된 화폐로 우리 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은 1근으로 만든 고가의 화폐이다 은병 하나의 값은 포 100여 필이나 되었다.

16. 다음 소충이 이루어진 시대의 가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보 기 >

ㄱ. 부계 위주의 족보가 널리 편찬되었다.

ㄴ. 아들이 없을 때에는 딸이 제사를 지냈다.

ㄷ. 사위가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ㄹ.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효자와 열녀를 표창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③

* 고려시대 가족제도, 혼인, 여성의 지위

• 제시문은 고려사 손변전에 실려 있는 일화로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고려 사람들은 대략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을 하였다.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이후 여러 번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으며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을 기재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으며,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다

㉡ 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17. (가), (나)를 주장한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 권수정혜결사문 -

(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 성인을 중국에 보내어 교화를 펴리라. 한 사람은 노자로 그는 가섭보살이요, 또 한 사람은 공자로 그는 유동보살(儒童菩薩)이다.” 하였다. 이 말에 의하면 유(儒)와 도(道)의 종(宗)은 부처님의 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 진각국사 어록 -

- ① (가)는 교관점수를 바탕으로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가)는 아미타 신앙을 내세워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 ③ (나)는 백련사를 중심으로 신앙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나)는 유·불 일치설을 내세워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⑤ (가), (나)는 왕실과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

정답 : ④

* 고려 후기의 불교

(가) 지눌, (나) 혜심

• 지눌은 무신 집권기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하기 위하여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고,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를 사상적 바탕으로 철저한 수행을 선도하였다. 또, 지눌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여 교와 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 지눌의 논리는 고려 불교가 지향하던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한 것이었다.

• 지눌의 결사 운동은 지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제자인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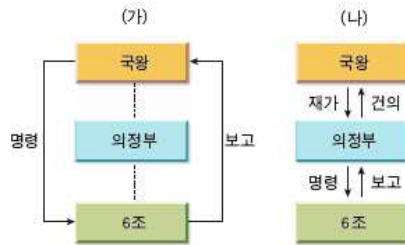
①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점수를 제창하였다

② 원효(7C)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을 자신이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정토종)의 길을 열었다.

③ 지눌과 비슷한 시기에 요세는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 만덕사(백련사)에서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⑤ 고려 전기에는 개경에 흥왕사나 현화사 같은 왕실과 문벌귀족의 지원을 받는 큰 사원이 세워져 불교가 번창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화엄종과 법상종이 나란히 융성하였다.

18. (가), (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 보 기 >
- ㄱ. (가) - 세조 때 폐지되었다.
 - ㄴ. (가) - 경연이 활성화되었다.
 - ㄷ. (나) - 재상의 합의를 중시하였다.
 - ㄹ. (나) -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⑤

* 조선 초기의 정치 운영

(가)는 6조 직계제

(나)는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설명이다

• 6조 직계제

6조를 왕이 직접 관장하는 체제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의정부 서사제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들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심의한 다음 결론을 내려 왕에게 결재를 받는 형식이다. 왕명도 서사하여 왕에게 재고를 요청할 수 있었고, 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었던 재상중심의 정치 제도이다

• 태종(6조 직계제) → 세종(의정부 서사제) → 세조(6조 직계제)

㉠ 6조 직계제는 세종 때 폐지되었다가 세조 때 부활하였다

㉡ 6조 직계제가 실시된 세조 때에는 경연이 일시 폐지되었다

19. 다음 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갑인자를 주조하여 인쇄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 ② 신기전 등의 무기를 제작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 ③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 ④ 「농가집성」을 편찬하여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였다.
- ⑤ 우리 풍토에 알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정답 : ④

* 조선 초기의 과학 기술의 발달

맨 왼쪽 기구는 **혼천의**이다

중간 사진은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라는 세종 대에 만들어진 천체 관측기기이고, 오른쪽은 일성정시의의 용이 물은 최상단부의 두마리의 작은 용입니다. 두 마리의 작은 용은 천구의 북극을 가리키고 있다.

① 고려 시대에 발명되어 사용된 금속 활자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더욱 개량되었다. 태종 때에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이어서 세종 때에는 역시 구리로 갑인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는 글자 모습이 아름답고 인쇄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기존의 밀랍법 대신 식자판 조립법 사용).

② 조선 초기에 만든 화포는 사정 거리가 최대 1000 보에 이르렀으며, 바퀴가 달린 화차는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 개를 잇따라 발사할 수 있었다.

③ 세종 때에 만든 칠정산은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로 하여 만든 역법서로,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다. 이는 15 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 조선 후기인 17세기 중엽에 신숙은 농가집성을 펴내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⑤ 조선 초기에는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 정리하여 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 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 사전을 간행하였다. 이로써 15 세기에는 조선 의학의 자주적 체계가 마련되어 민족 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20.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정암은 타고난 자질이 참으로 아름다웠으나 학문에 충실하지 못하여 시행한 것에 지나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요순 시대의 임금과 백성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무리 군자의 뜻이라 하더라도 때와 역량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다. 기묘(己卯)의 실패는 여기에 있었다.



- 「퇴계집」 -

- 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 ② 해주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에 힘썼다.
- ③ 조약재문을 지어 사회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 ④ 「소학」 보급을 통해 유교 윤리를 확산시키려 하였다.
- ⑤ 유교 경전의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정답 : ④

* 조선 중기 사림의 대표 조광조

• 반정 후 중종은 사림을 다시 등용하여 유교 정치를 일으키려 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조광조가 중용되면서 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사림이 대거 등용되었다. 이들은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신들의 반발로 말미암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 조광조의 개혁 정책: 조광조를 비롯한 당시의 사림은 경연의 강화, 언론 활동의 활성화, 위훈(僞勳) 삭제, 소격서의 폐지, 소학의 보급, 방납의 폐단 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 ① 주세붕에 관한 설명이다
- ② 율곡 이이에 관한 설명이다
- ③ 김종직에 관한 설명이다(무오사화 관련)
- ⑤ 대표적인 인물로 숙종(肅宗) 때의 학자인 윤훤(尹鑣)가 있다

21.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은(는) 양주 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날래고 용맹했으며 무리 10여 명이 모두 날래고 빨랐다.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도적들이 난동을 부린 3년 동안에 다섯 고을이 피해를 입었고 2도의 군사를 움직여 겨우 한 도적을 잡았는데 양민의 죽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 영종추부사 윤원형이 함께 의논하여 아뢰었다. “요사이 많은 도적들이 주민을 살해하는 일이 매우 많은데도,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감히 고발하지 못하고, 관리들은 비록 보고 듣는 바가 있어도 매복을 시켜 잡을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합니다. 지난날 (가) 을(를) 추적할 즈음에 적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가 끝내 적들이 멋대로 날뛰게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 ① 감자를 구워 먹는 아이
- ②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는 노인
- ③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는 관리
- ④ 덕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광부
- ⑤ 돈으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농민

정답 : ③

* 조선 중기의 사회상(수취 체제의 문란)

• 양주 백정 (가)임격정과 윤원형 등의 자료를 통해 조선 중기(16세기)임을 알 수 있다

• 16세기에 이르러 수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심해지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증가하였다. 공납에서는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많이 챙기는 방납이라는 폐단이 나타났다. 방납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공물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농민이 도망을 하면 그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내게 하였다. 이 때문에 유망 농민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명종 때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격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임격정: 조선 중기 황해도 함경도 등지에서 활동하던 도둑으로 천민인 백정 출신이며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줘 의적이라고 불렸다.

①,②,④,⑤ 모두 조선 후기에 대한 설명이다

22.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모든 백성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번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이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 『일성록』 -

- ① 친영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 ② 납속이 행해지고 공명첩이 남발되었다.
- ③ 서얼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 ④ 향도가 대규모 불교 행사를 주도하였다.
- ⑤ 중인이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 활동을 하였다.

정답 : ④

* 조선 후기의 사회상

조선 후기에는 향촌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변화로 신분 변동이 활발했다. 양반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는 부를 축적한 농민이 지위를 높이거나 역의 부담을 모면하려고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①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친영 제도)

②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 변동이 심화되었는데, 전란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자, 서얼은 이를 이용하여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③ 조선 후기 정조 때에는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④ 고려 시대 향도는 초기에는 매향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불상,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후기에 이르러 점차 신앙적인 향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되는 향도로 변모되어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⑤ 조선 후기에는 중인층과 서민층의 문학 창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동호인들이 모여 시사를 조직하였다.

23. (가), (나)를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1여(閭)마다 여장(閭長)을 두며, 무릇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 여민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칠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나)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생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 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짚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직공이 쇠퇴하고,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술을 숭상하지 않아서 장인이 도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된다.

- ① (가) -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주장하였다.
- ② (가) - 권력은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 나온다고 하였다.
- ③ (나) -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나) - 혼천의를 제작하고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 ⑤ (가), (나) - 기술의 혁신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정답 : ④

*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주장

(가)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던 정약용
(나)는 소비를 권장하였던 박제가이다

• 이익의 실학 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으로,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공동농장 단위의 공동생산, 공동분배)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박지원의 실학 사상은 그의 제자 박제가에 의하여 더욱 확충되었다. 박제가는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상공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기술 혁신).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정약용은 그의 저서 <원목>, <탕론> 등에서 백성생활의 수요와 백성 스스로의 선택, 약속(합의)으로 통치자(권력)가 탄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 ③ 박제가 등의 북학과 실학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 사상으로 이어졌다.
- ④ 지전설을 주장한 이는 김석문, 홍대용 등이다
- ⑤ 정약용의 ‘기예론’과, 박제가의 ‘북학의’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술의 개발, 축적이 부국강병과 국민민복을 가져다다고 보고 있다.

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진주민 수만 명이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서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 등을 눈앞에서 여러 번 문책하였다. - 「임술록」 -

(나)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強敵)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 호남 창의 대장소 백산 격문 -

- ① (가) - 신분 해방을 주장하였다.
- ② (가) - 백낙신의 학정이 원인이 되었다.
- ③ (나) - 삼정이정청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 ④ (나) -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항거해 일어났다.
- ⑤ (가), (나) - 반봉건, 반외세를 주장하였다.

정답 : ②

* 농민 봉기(진주민란과 동학농민운동)

(가)는 진주민란, (나)는 동학농민운동이다

• 임술 농민 봉기(1862)는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농민들은 탐관오리(백낙신)와 토호의 탐학에 저항하여 한때 진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항거는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퍼졌다. 이러한 저항 속에 농민들의 사회 의식은 성장하였고, 농민들의 항쟁으로 말미암아 양반 중심의 통치 체제도 점차 무너져 갔다.

• 동학 농민 운동(1894)은 농민층이 전통적 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개혁 정치를 요구하고, 외세의 침략을 자주적으로 물리치려 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반봉건적, 반침략적 민족 운동이었다. 비록 당시의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신분제 폐지 등).

③ 조선 후기 세도정치로 인한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어 농민 봉기가 잇따르자 임술농민봉기(진주민란)를 계기로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1862)하여 삼정 문란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별무하였다.

④ 서북지역민에 대한 차별 대우는 홍경래의 난(1811)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25. 다음 건축물을 건립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점]

(가)



봉정사 극락전

(나)



부석사 무량수전

(다)



무위사 극락전

(라)



법주사 팔상전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나) - (라)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다) - (라) - (가)
- ⑤ (라) - (가) - (나) - (다)

정답 : ①

* 역대 불교 건축물

•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비호를 받은 불교와 관련된 건축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 적지 않다. 무위사 극락전은 검박하고 단정한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당시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하고 있다. 세조 때에 대리석으로 만든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 시기 석탑의 대표작이다.

• 조선 후기 17세기의 건축으로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26. 다음 낱말 퀴즈에서 (가)~(마)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라) 과			
(가) 역	분	전	(마) 직		
		법	(나) 전	시	과
			법		
	(다) 녹	과	전		

가로 열쇠

세로 열쇠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라) _____

(마) _____

- ① (가) - 관품을 기준으로 관리들에게 분배하였다.
- ② (나) - 국가에서 조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 ③ (다) - 녹봉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하였다.
- ④ (라) -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⑤ (마) - 수신전, 휴양전은 세습되었다.

정답 : ③

* 역대 토지 제도

(가) **역분전** (태조, 940년): 전결(田結)의 단위로 수조지를 지급

후삼국 통일의 논공행상적 토지급여로 공역자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인품이나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 수조지를 차등 있게 지급한 것이었으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좀더 세분된 농지면적 단위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경종 대에 처음 실시되는 전시과 제도의 선구가 되었다.

(나) **전시과**: 경종, 목종, 덕종, 문종 4차례 개정.

문무양반으로부터 부병(府兵), 인(閑人)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국가의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일반 농지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척박한 토지인 시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토지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각 관등의 관리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결수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감소되어 갔다.

(다) **녹과전**: 고려 중기 이후 관리에게 주는 녹봉(綠俸)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신 나누어 준 토지로 경기(京畿)의 땅을 관리에게 녹봉 대신 등급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전(私田)의 하나로, 소유자는 경작자에게서 전조(田租)만 받았다.

(라) **과전법**: 고려 말 토지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가재정 집나의 확충과 신진사대부의 경제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기에 한하여 전·현직 18관등에 따라 수조권을 부여하였다(1/10)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수신전·휴양전 등의 과전은 일부의 세습화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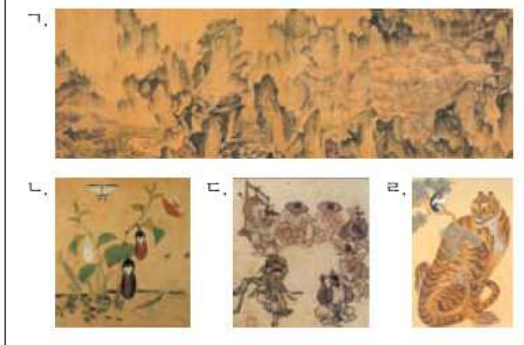
(마) **직전법**: 토지 분급지의 부족 해결, 재정확보와 국가의 토지 지배 강화를 위해 수조권을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토지 지급액을 감소시키고, 수신전·휴양전·군전·공해전 등이 폐지되었다

- ① 인품이나 공로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 ② 관수관급제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다
- ④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⑤ 수신전·휴양전은 폐지되었다

27. 다음의 경제 상황이 전개된 시기의 예술 작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 주변의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의 연초밭, 북도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은 모두 최상의 논과 비교해도 이익이 얼 배나 된다.

〈보기〉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⑤

* 조선 후기의 예술 작품

•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이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여 가게 수입을 증가시켰다. 장시가 점차 증가하여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농민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을 재배하여 팔았다.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하였다. 쌀은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 장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 쌀의 수요가 늘면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하였다.

•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고,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를 담은 글씨의 등장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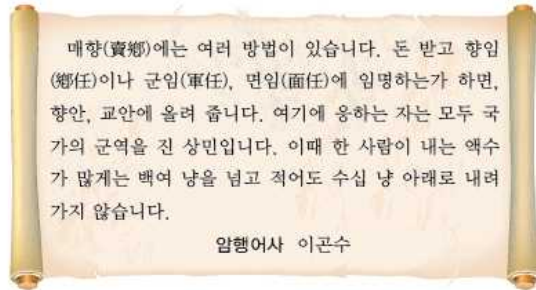
㉠ 조선 전기의 화가 안견의 산수화인 몽유도원도이다

㉡ 조선 중기 신사임당의 초충도병 이다

㉢ 조선 후기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무동이다

㉣ 조선 후기의 민화이다

23. 다음 보고서가 작성된 무렵의 사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신향과 구향의 대립으로 향전이 발생하였다.
- ② 비기·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 ③ 천주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는 금령이 내려졌다.
- ④ 수령권의 강화로 향리의 자의적 농민 수탈이 약화되었다.
- ⑤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자문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변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부농층의 성장 욕구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이해와 일치하여 정부도 이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납속이나 향직

의 매매를 통하여 이들 부농층 성장의 합법적인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 총액제 수취권에 대한 향촌 지배세력을 둘러싸고 구향(기존 사족)과 신향(신흥 부농)의 향전이 벌어졌고,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여 갔다. 그러나 향촌 지배에 참여하지 못한 부농층도 여전히 많았다.

이에 따라, 종래에 재지 사족인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 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화하였다. 곧, 수령 중심의 국가 권력이 향촌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재지 사족이 지배하고 있던 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관권의 강화는 세도 정치 시기에 정치 기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수령과 향리의 자의적인 농민 수탈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② 사회가 변화하면서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비기, 도참 등을 이용한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 말세의 도래, 왕조의 교체, 변란의 예고 등 근거없는 낭설이 횡행하여 민심을 혼란시켰다. 정감록은 이때에 널리 유행한 비기였다

③ 조선 후기에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세가 확장되고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유교의 제사 의식을 거부하자,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부정과 국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사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29. 밑줄 그은 '이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이들의 무리는 여러 곳을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삶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도로에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의식(衣食)을 팔방에서 얻는다. 두목울 선택하여 뽑고, 공원과 집사를 뽑아 술주정을 하거나 잡기에 물드는 폐단을 막는다. - 「임흥청금록」 -
- 지금 해상공국을 설치함은 특별히 임금님께서 이들을 가엾게 보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그 감사하고 축하함이 과연 어찌하리오. - 「해상공국 절목」 -

< 보 기 >

- ㄱ. 지방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였다.
- ㄴ. 관허 상인으로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다.
- ㄷ. 황국협회를 중심으로 독립협회 탄압에 앞장섰다.
- ㄹ.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여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보부상에 대하여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장시는 서울 근교와 지방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농민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몰릴 것을 염려한 정부에서는 장시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장시는 정기 시장으로 정착해 갔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보부상은 장시에서 농산물, 수공업 제품,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 도성의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부여받았다(관허 상인).

㉡ 독립 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 독립 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보부상들의 어용 조직)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 독립 협회와 시전상인의 조직인 황국 중앙 총상회 등과 같은 단체들이 국내 산업 진흥과 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외국의 이권 탈취 및 경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상권 수호 운동).

30. 다음은 역사 탐구반이 수행할 탐구 활동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모둠	탐구 주제	주요 자료
1모둠	(가)	고류 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
2모둠	(나)	『왕오천축국전』
3모둠	(다)	해인사 장경판전
4모둠	(라)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5모둠	(마)	백두산 정계비문

- ① (가) - 삼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
- ② (나) - 신라 승려들의 구법 활동
- ③ (다) - 조선 전기 건축술의 과학성
- ④ (라) - 조선 후기 서양 지도의 영향
- ⑤ (마) - 간도 지역의 영유권 분쟁

정답: ④

* 역사적 유물과 관련 사항

① 삼국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전래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 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호류 사 백제 관음상이 만들어졌다.

② 통일 신라 시기에 많은 승려가 중국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전수해 왔다.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오는 승려도 있었다(구법 승려). 그 중에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 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③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비호를 받은 불교와 관련된 건축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 적지 않다. 무위사 극락전은 검박하고 단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의 장경판전은 당시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하고 있다.

④ 조선 초기에는 중앙 집권과 국방의 강화를 위하여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에 힘썼다. 태종 때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이지도의 필사본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 된 것이다.

⑤ 조선 후기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이 정계비에서 양국 간의 국경은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하였다.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경복궁을 중수할 때 **(가)**을(를) 주조하자, 물가
가 앙등하고 이를 위조하는 자가 많이 발생하여 처벌하였으
나 금지할 수 없었다. - 「매천야록」 -

〈 보 기 〉

ㄱ. 전황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ㄴ. 화폐 정리 사업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ㄷ.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 100전에 해당하였다.
ㄹ. 전국에서 구리와 쇠붙이를 징발하여 주조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

홍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경복궁 중건에 필
요한 재정이 부족하자 전국의 동, 철을 징
발하여 기존의 상평통보 1전의 백배의 명목
가치에 해당한다는 의미의 당백전을 발행하
였다(실질가치는 1/20배). 이는 물가 앙등
의 큰 경제적 혼란과 백성들의 고통을 야기
하였다.

㉠ 전황은 시중에 화폐가 부족하여 오히려
화폐의 실질가치가 폭등하는 당백전 발행과
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 일본 재정 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정
리사업으로 인해 발행이 중단된 화폐는 백
동화이다(1892년 전환국에서 발행한 액면
가 2전5푼의 동전).

32.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사발 봉문



장태

〈 보기 〉

- ㄱ. 조세의 금납화를 요구하였다.
- ㄴ.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 ㄷ. 친일 내각의 단발령 조치에 반대하였다.
- ㄹ. 장성 황룡촌에서 정부군을 물리쳤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동학농민운동(1894)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욕스럽고 포악함에 봉기한 이후(**고부 봉기**), 보국 안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우며 황토현, 황룡촌 등에서 승리하며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1차 봉기**).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농민군은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이를 실천해 나갔다(**집강소 시기**). 그러나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2차 봉기**). 하지만, 텐진 조약을 빙자하여 우리 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 조세의 금납화는 갑오개혁 때에 실시되었다.

㉡ 단발령에 항거하며 일어난 운동은 양반 유생 중심의 위정척사파가 주도한 항일의병이다(을미의병)

33. 다음은 고종이 어느 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의 사진이다.
이에 대한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어.
② ㉡은 박문국 책임자로 한성순보를 발간했어.
③ ㉢은 갑신정변 때 수구파로 몰려 부상을 당했어.
④ ㉣은 갑오개혁 시기 김홍집 내각에 참여했어.
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파견된 외교 사절이야.

정답: ②

* 보빙사와 개화파 주요 인물

• **보빙사**: 최초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로 1883년 주한 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하였다. 이에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비대해진 청나라의 세력을 견제한다는 뜻에서 정사(正使)에 민영익, 부사(副使)에 홍영식, 그 외에 수행원들을 대동시킨 친선 사절단을 서방 세계에 파견하였다.

• **유길준**(1854~1914): 일찍이 개화파의 태두인 박규수 문하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며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 후쿠자와가 운영하는 게이오 의숙에 입학하여 개화사상을 두루 섭렵하였다. 1883년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건너 갔다가 미국에 남아 국비유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덤

머 아카데미를 다녔다.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귀국하라는 고종의 친서를 받고 귀국길에 올랐다. 1885년 대서양을 건너 영국, 포르투갈 등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이에 대한 기행문 ‘서유견문’을 썼고(1895년 출간), 영국에 의한 거문도 사건(1885)이 일어나자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이후 개화파의 중심인물로서 갑오, 을미개혁을 주도하였고, 한일합방 후 국민교육과 계몽사업(홍사단)에 헌신하였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조선문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문법서를 조술하였다.

• **홍영식**(1855~1884): 조선 후기의 문신. 개화당의 중진으로, 신설된 우정국의 총판이 되어 그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을 일으켜 사대당을 제거하고 신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신정부가 무너지자 대역죄로 처형되었다.

• **민영익**(1860~1914): 조선 말기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로서 개화기 개화 업무를 이끌었다(온건개화). 갑신정변 때 수구당(사대당)으로 몰려 온몸에 자상을 입어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으나 미국인 의사 알렌의 치료를 받고 회복하였고, 이를 기회로 서양 의술에 대한 인식이 전향적으로 크게 변하였다. 이후 정치적 입장이 보수파로 바뀌면서 개화파와 등을 지게 되었다

서광범(1859~1897): 갑신정변의 주역으로서 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박영효와 함께 귀국하여 2차 갑오개혁, 3차(을미)개혁에 참여하여 개혁을 주도하였으나 아관파천으로 친러 정권이 들어선 후 몰락하여 미국에 체류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② 홍영식은 박문국(신문)이 아닌 우정국(우편)의 책임자이다.

34. 교사의 질문에 대해 바르게 대답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갑 : 한반도 중립화론이 대두된 계기가 되었어요.
 을 : 동학 농민군이 재봉기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병 :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어요.
 정 : 일본이 삼국 간섭 이후 약화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일으켰어요.

-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정답: ⑤

* 을미사변(1895): 민비 시해 사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러시아 등의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세력은 위축되었다. 이 틈을 타서 명성 황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 하자,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켰다(명성 황후 시해 사건, 1895). 이 사건 후 개화파 정부는 개혁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단발령 등을 실시하였다(을미개혁).

전국의 유생과 농민은 명성 황후 시해와 단발령 실시에 항거하여 대대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다(을미의병). 이 때의 의병은 유인석, 이소응, 허위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이 주도하였고, 농민층이 가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 갑신정변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 이렇듯 열강의 조선 침략이 격화되자, 조선 주재 독일 외교관인 부들러나 개화파 지식인 유길준 등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자는 논의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정을 간섭하자,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외세를 몰아 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하지만, 텐진 조약을 빙자하여 우리 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35.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주로 왕실 어람용으로 제작되었다.
- ② 소유권이 한국으로 영구 반환되었다.
- ③ 병인양요 때 다른 문화재와 함께 약탈되었다.
- ④ 정조 때 강화 행궁에 건립한 건물에 보관되어 있었다.
- ⑤ 김영삼 정부 때 고속철도 협상 과정에서 1권을 돌려받았다.

정답: ②

* 의궤(儀軌)

의궤: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여러가지 의례의 전모를 소상하게 기록한 서책이다(왕실 어람용). 실록 등에도 의례의 기록이 남아있지만 내용의 규모가 방대하고 소상하며 행차모습 등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의궤로 제작하였다. 왕실의 혼사, 장례, 부모, 잔치, 건축, 잔치, 편찬 등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여 유사한 행사가 있을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내용은 행사가 준비되어 진행된 과정, 업무의 분장, 동원된 인원, 물자 및 비품의 조달과 배정, 경비의 수입과 지출, 건물 및 비품의 설계 및 제작, 담당 관리와 동원된 인물, 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관계된 사실 모두를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조선시대 의궤에는 그림이 다수 실려 있는데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도구와 건물은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였고 의궤의 행렬을 표현한 반차도(班次圖)와 같은 그림은 화려한 천연색으로 실었다. 대체로 5~8부 정도가 제작되었는데, 임금의 열람을 위하여 고급재료로 화려하게 만드는 어람용(御覽用) 1부가 포함되며 나머지는 관련 관서 및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로 쳐들어온 프랑스군이 강화 행궁에 건립된 외규장각(外奎章閣)에 보관되던 많은 수의 의궤를 약탈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수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김영삼 정권 대에 고속철도 협상 과정 중 1권 반환받음)

2007년 6월 '조선왕조의궤'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었다.

② 프랑스에 소장된 의궤는 영구 반환이 아닌 임대 형식이다.

36. (가), (나)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오늘 우리는 국왕이 서대문 밖 영은문의 옛터에 독립문이라 명명할 문을 건립할 것을 승인한 사실을 경축하는 바이다. 이 문은 다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모든 유럽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조선 본토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 새 영토로 삼고 나아가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 ① (가)는 민중이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② (가)는 (나)의 영향으로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 ③ (나)는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을 함께 준비하였다.
- ④ (나)는 고종 황제의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⑤ (가), (나)는 공화 정체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정답: ③

* 자강 개혁 단체 독립협회(1896~1898)와 신민회(1907~1911)

독립협회: 아관 파천으로 국가의 자주성은 손상되었고, 광산, 삼림 등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 등은 독립 신문을 창간하여 서구의 자유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으며,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독립 협회는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국권·민권 사상을 고취시켜,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또,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등을 달성하려는 정치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와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독립 협회의 활동은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다. 독립 협회는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의 방해를 받았고, 결국 3년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신민회: 애국계몽운동단체 중에서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이었다. 신민회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의 건설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으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 ① 독립협회의 개혁은 지식인층과 민중이 어울어진 것이지만 민중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 ④ 고종의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다.

37. 다음 법을 반포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제1조 대한민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제6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한다.

제9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 ① 입헌 군주제의 통치 체제를 지향하였다.
- ②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③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여 교민을 보호하였다.
- ④ 각종 실업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 ⑤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정답: ①

* 대한제국과 광무개혁(1897~1905)

개혁의 내용 :

• 정치: 대한국 국제 반포(1899, 최초 헌법) → 자주 독립과 황제 전제권 강화 표방

• 경제: 양전사업(양지아문) → 지계 발급(지계아문,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도모), 황실 중심의 상공업 진흥책 추진(근대적 공장, 회사 설립)

• 사회·문화: 각종(실업, 기술 등)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근대 시설 확충

• 군사: 원수부 설치(황제가 군권 장악), 무관 학교 설립(장교 양성)

• 외교: 간도, 연해주 교민 보호 정책 → 간도 관리사(이범윤) 파견

⑤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를 포함시키고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3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항어항 어허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깨묵만 먹고 사누나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정신대 보낸 어머니 팔이 깎여서 울고요
어항어항 어허야
풀만 씹는 어미소 배가 고파서 우누나

- 신고산 타령 -

①



금속 공출

②



물산 장려 운동

③



토지 조사 사업

④



암태도 소작 쟁의

⑤



제복을 입은 교직원

정답: ①

* 일제의 총동원 체제(1938년 이후)의 모습

총동원령 선포(1938) 이후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특히, 일제는 강제 징용으로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고, 학도 지원병 제도, 징병제도 등을 실시하여 수많은 우리 젊은이를 전쟁에 동원하였다. 또, 젊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 군수 공장 등에서 혹사시켰으며, 그 중 일부는 전선으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양곡 배급제를 실시하였으며,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일제는 군수 산업 이외의 기업 활동을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숟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금속 공출).

② 물산장려운동: 1920년대

③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④ 암태도 소작쟁의: 1923~1924에 있었던 대표적 소작쟁의

⑤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의 모습은 무단통치기(1910년대)의 전형적 모습

39. 1909년에 (가)~(마)의 건물 앞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정답: ②

* 1909년의 서울의 주요 건물

(가) **손탁 호텔**: 1902년 독일의 여성 손탁이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세운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

(나) **원각사**: 1908년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설립(이인직의 '은세계'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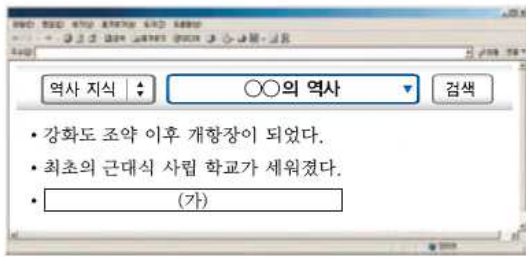
* 나운규의 아리랑은 1926년 극장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다.

(다) **배재 학당**: 최초의 서구식 근대 사립 학교로서 기독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하였다.

(라) **세브란스 병원**: 1885년 선교 의사 앨런에 의해 세워진 광혜원(->제중원)이 모태가 되었다. 1900년 미국 클리블랜드의 사업가 L.H.세브란스가 병원신축을 위하여 거액을 기부, 1904년 남대문 밖 복숭아골에 한국 최초의 병원이 준공되었으며, 이름도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었다

(마) **명동 성당**: 프랑스 신부 고스트가 설계하여 1892년에 시작되어 1898년에 완성된 한국 천주교의 대표적인 교회당 건물이다

40. 어느 도시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서울과 연결된 철도가 최초로 부설되었다.
- ② 6·25 전쟁 중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다.
- ③ 일제 강점기에 지역 노동자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 ④ 호남 지방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심 항구였다.
- 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답: ③

* 원산의 역사

•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3개항이 개항:
부산(1876), 인천(1880), 원산(1883)

• 1883년에는 원산에 사립 교육 기관인 원산 학사가 설립되어 최초로 근대 교육을 하였다.

• 일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 쟁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이었다. 이 파업은 전국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자도 격려 전문을 보내와 국제적 연대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①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서울-인천)이 1899년에 개설되었다.

② 6.25 중 임시 수도는 부산이다

④ 곡창인 호남 평야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중심 항구는 군산항이다.

⑤ 마산에서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41. 다음 4부작 가상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특별기획 국외 동포의 삶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서

○○월 7일 방영 1부 만주

○○월 14일 방영 2부 연해주

○○월 21일 방영 3부 미주

○○월 28일 방영 4부 일본

< 보기 >

가. 제1부 - 명동 학교와 서전 서숙을 세우는 애국지사들
 나. 제2부 -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동포들
 다. 제3부 - 대한 광복군 정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
 르. 제4부 -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에게 학살당하는 동포들

① 가, 나 ② 다, 르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르 ⑤ 나, 다, 르

정답: ④

* 만주, 연해주, 미주, 일본 등에서의 우리 동포의 삶과 발자취

• 만주(간도 중심)

근거지: 서간도(삼원보)

북간도(용정, 왕철, 연길)

밀산부(만.소 접경 지대, 한흥동)

학교: 신흥무관학교(서간도, 독립군 양성)

서전서숙, 명동학교(북간도)

단체: 경학사(→한족회, 부민단, 서간도)

중광단(→북로군정서, 대중교, 북간도)

• 연해주

근거지: 신한촌,

단체: 13도창의군, 대한광복군정부(이상설),

성명회, 권업회, 대한국민의회

* 중앙 아시아 강제 이주(1937)

• 중국 관내:

상해: 신한 청년단(1918, 김규식 등)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 조성

• 미주

안창호: 국민회, 흥사단

박용만: 대조선 국민 군단(1914, 군인양성)

• 일본(유학, 취업 등 목적 이주)

관동 대지진(1923): 재일동포 6000여명 학

살

42. (가)를 시행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가)은(는)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지적을 명확히 하여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매매·양도를 간편·확실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 생산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서 조선의 중요한 시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조선 총독부 시정연보 -

- ① 지주들을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 ② 일본 국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③ 식민지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④ 공업용 원료를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 ⑤ 소작 관계를 법제화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정답: ③

* 토지조사사업

(1) 토지 조사 사업(1912~18)의 실시

- 실시 목적: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토지 소유권 재조사 → 실제로는 토지의 약탈, 지세의 안정적 확보(식민지 통치의 재정적 기반)

- 방법: 복잡한 구비 서류, 기한부 신고제

(2)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 총독부의 토지 약탈 : 미신고 농토, 공공기관 토지, 마을·문중의 토지의 상당 부분을 총독부가 차지 → 동양척식 주식회사 등 토지 회사나 일본인에 헐값으로 불하

- 과세지 면적 증가 → 총독부의 지세 수입 급증(1910년대에는 재정 수입의 대부분이 지세), 농민 부담 가중

- 식민지 지주제의 확대 : 지주의 권한 강화, 소작농의 권리 약화 → 소작 농민은 영구 경작권(도지권)을 상실,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 ↔ 소작 쟁의 발생의 배경

- 농민의 몰락 → 만주, 연해주 등 국외 이주

② 산민증식계획의 목적(1920년대)

④ 남면북양 정책의 목적(1930년대)

⑤ 조선농지령의 목적(1934년)

43. 다음은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나) 제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 그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조 전조의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① (가)는 문화 통치 시기에 폐지되었다.
- ② (가)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③ (나)는 정식 재판 없이 즉결 처분이 가능하였다.
- ④ (나)는 3·1 운동 참여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⑤ (가), (나)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정답: ①

* 일제의 (가)태형령과 (나)치안유지법

• **태형령**: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었던 태형이 무단통치 기간인 1912년 제정되어,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었다. 3·1운동 이후 비등한 여론과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기만적인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 폐지되었다.

• **치안유지법**(1925~1945): 일본제국과 식민지 전체에 적용되는 천황 통치 체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로서 독립운동과 사회주의를 탄압(사상 전향을 강요)하기 위한 법령이다.

③ 1910년대에 일제는 무단 통치를 행하여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빼앗고, 독립 운동을 탄압하였다. 또, 일제는 헌병 경찰과 헌병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즉결 처분권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을 태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44.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변의 일정한 세력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할 것이니 이에서 민족 운동과 계급 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병립·병진하여야 할 것이요

1. 조선의 운동은 두 진영의 병립 협동을 가장 동지적으로 지속해야 할 정세 하에 있고 둘이 서로 대립 배격할 정세를 가지지 않았다. 협동된 전선 전개에 있어서 두 개 진영의 본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동지적 관련조차 기할 수 있는 것이다.

1.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으로서의 (가) 교수 및 그 성장 발전을 위한 재편성을 강요한다.

- ① 6·10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비밀 지하 조직으로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 ③ 전국 각 군과 해외까지 지회 조직을 확장하였다.
- ④ 농민과 노동자 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 ⑤ 의열단, 한국 독립당 등의 단체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정답: ③

* 좌우 합작단체 신간회(1927~1931)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운동도 활발해지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신간회가 조직되었다(1927). 신간회는 자치론의 확산을 우려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인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민족 협동 전선으로 조직한 것이었다. 이들은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열어 조선인에 대한 착취 기관 철폐, 기회주의 배격,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 실시와 생활 개선등을 주장하고, 노동 쟁의나 소작 쟁의, 동맹 휴학 등을 지원하였다.

① 6.10 만세(1926): 학생들과 사회주의계에서 각각 추진 → 일제의 사전 감시와 탄압 → 사회주의계의 기획은 사전 발각, 학생들의 주도로 순종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만세 시위 운동 전개

②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거를 일으켜 민족의 독립 의지를 고취하고 일제의 침략을 저지하려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비밀 지하 조직 형태의 김원봉의 의열단, 김구의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하면서 식민통치 기관을 파괴하거나 일본인 고관, 친일 인사들을 처단하였다.

③ 신간회는 각 군과 해외에 1928년 143개의 지회와 2만 명의 회원 확보하였다.

④ 노동자, 농민의 연합 단체 조직으로 1924년에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었으나, 곧 1927년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립되어 각기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를 주도하였다.

⑤ 1935년 난징에서 의열단의 김원봉이 주도하여 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독립당·의열단의 5당 대표 14명이 모여 민족혁명당을 결성했다(민족연합전선).

45.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나) 소유권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거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

한다.



- ① 미군정기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② 전통적인 지주 소작 관계가 붕괴되었다.
- ③ 유상 매입·유상 분배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 ④ 법령의 시행 후 자작 농지의 비율이 늘어났다.
- ⑤ 토지 대금으로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교부하였다.

정답: ①

* 농지개혁(1950~1957)

배경:

- 국민의 대다수가 소작농 → 일본인 소유 토지 분배와 지주제 개혁에 대한 요구
- 북한의 토지 개혁(1946): 무상 몰수, 무상 분배
- 산업화의 토대 마련 의도(토지 자본 → 산업 자본)

농지 개혁법 제정(1949: 제헌 국회)

- 1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을 3정보로 제한
- 3정보 이상의 농지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등을 정부가 유상 매수 → 농민에 유상 분배(유상 매수, 유상 분배)

※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개혁 착수(1950) → 개혁 완료(1957)

농지 개혁의 결과와 한계

-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자작 농지 비율 증가)
- 남한의 공산화 방지에 기여
- 유상 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되팔고 소작 농화)
- 유상 매수를 위해 발행한 지가(地價) 증권이 현금화가 잘 안됨 → 중소 지주층이 산업 자본가로 변신에 어려움

① 미 군정기는 1945~1948

46.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구분	주요 특징
(가) 1차 개헌(1952)	발췌 개헌
(나) 3차 개헌(1960)	양원제 채택
(다) 6차 개헌(1969)	대통령 3선 허용
(라) 7차 개헌(1972)	유신 헌법 채택
(마) 9차 개헌(1987)	대통령 직선제

- ① (가) -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② (나) - 4·19 혁명 직후 과도 정부 시기에 추진하였다.
③ (다) - 7·4 남북 공동 성명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④ (라)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⑤ (마) -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정답: ③

* 역대 헌법의 변화

- 1차 개헌(1952): 이승만 정권, 발췌개헌, 국회 간선제인 대통령·부통령을 직선제로 전환, 국회 양원제 규정
- 3차 개헌(1960): 4.19혁명 직후 허정 과도 내각 때 추진, 장면 정권 헌법,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채택
- 6차 개헌(1969): 박정희 정권, 대통령 3선 허용,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됨
- 7차 개헌(1972.10): 유신 헌법, 박정희 정권,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의 분위기 속에서 추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6년), 대통령 권한을 크게 강화(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1/3 임명, 긴급조치권),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
- 9차 개헌(1987):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현행 헌법, 대통령 권한 축소(비상 조치권, 국회 해산권 폐지)

47. (가), (나)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논의한 국제 회의의 결정 사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일본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 앞의 3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

(나) 공동 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 발전 및 조선 독립 국가 수립을 도와 줄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 공동 위원회는 미·영·소·중 4국 정부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한국 임시 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 < 보기 —

ㄱ. (가) -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하였다.
 ㄴ. (가) - 38도선이 확정되어 남북 분단의 계기가 되었다.
 ㄷ. (나) -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다.
 ㄹ. (나) -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정부 수립과 관련된 국제 회의: (가) 카이로 회담(1943)과 (나) 모스크바 3상 회의(1945.12)

•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라 하여 한국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를 하였다

• 1945년 12월,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 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탁 통치에 반대한 우익과 모스크바 3 국 외상 회의 결정안에 찬성한 좌익이 대립하게 되어, 결국 자주 독립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민족 분단의 길로 가게 되었다.

㉠ 원폭 투하(45. 8.6, 8.9) → 소련군의 참전(45. 8. 9) →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한 미국의 38도선 분할 제의, 소련이 수용(45. 8. 10) → 남북에 미, 소 점령군 진주(1945. 8월 말 ~ 9월 초)

㉡ 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1947.7),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1947.9).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4)

48. 다음 우표들을 발행한 정부 하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다.
- ②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었다.
- ③ 4·13 호헌 조치를 선언하였다.
- ④ 3저 호황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 ⑤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정답: ①

* 박정희 정권(1961~1979. 1961~1963 군정 포함)

- 1977: 수출 100억 달러 돌파
- 1971: 남북적십자회담 시작
- 1970: 경부고속도로 준공
- 1974: 지하철 1호선 개통(서울역-청량리)

① **광주 대단지 사건**: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항거하여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킨 채 도시를 점령하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② 김영삼 정권(1993~1998) 때인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과 다음 해에 세계 무역 기구(WTO)가 출범하자,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시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국제 무역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시장 개방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③ 전두환 정부(1981~1988)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간선제 헌법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④ 전두환 정권 때인 1980년대 중반에 한국 경제는 안정되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맞아 자동차, 가전 제품, 기계, 철강 등 중화학 분야를 주력으로 한 고도 성장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⑤ 이승만 정권 때인 1950년 대에는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3백 산업)

49. (가), (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구분	(가)	(나)
연도	1907년	1997년
배경	차관 도입	외환 부족
목표액	1,300만 원	250억 달러 상당의 금 모으기
모금액	약 18만 7천 원	21억 7천만 달러 상당

< 보 기 >

- ㄱ. (가)는 국채 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ㄴ. (가)는 독립신문의 적극적인 홍보로 성과를 거두었다.
ㄷ. (나)는 IMF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개되었다.
ㄹ. (가), (나)는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 경제적 구국 운동: 국채보상운동(1907)과 금모으기 운동(1997)

• 1907년에는 국민 모금으로 정부가 진 빚을 갚아서 경제 자립과 국권 수호를 이룩하려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상공인과 지식인들로부터 시작되어(국채보상기성회: 서상돈, 김광제 주도, 대구에서 시발) 전 국민으로 확산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담배를 끊어 절약한 돈이나, 비녀와 가락지 등과 같은 패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성금으로 내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 1997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통화 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있다. 외국에 갚아야 할 외환 부족으로 시작된 위기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국민의 헌신적인 노력(**금모으기 운동**: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에 기부한 운동.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 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전국 누계 약 350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과 정보 통신 기술, 자동차 공업, 선박 제조업, 반도체 생산 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통해 벗어나게 되었다. 외환위기를 맞아 국민은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다.

④ 국채 보상운동(1907)은 당시 대한매일신보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루어졌다.

* 독립신문(1896~1899): 최초의 민간 신문, 국문 신문, 계몽적 성격

50.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북 학생 회담을 추진하였다.
- ② 선건설 후통일론을 제시하였다.
- ③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시행하였다.
- ④ 북진 통일을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 ⑤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 6.15 공동 선언과 김대중 정권 (1998~2003)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① 4·19 혁명 직후 장면 정권 하에서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남북 학생 회담(“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등이 제기되었다(1961). 이러한 통일 논의는 그 후의 남북한 대립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② 선건설 후통일론이란 ‘선(先)경제 건설 후(後)통일론으로서 장면 정권에서 제기되어 박정희 정부에 계승되었다.(1960년대)

④ 1950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론으로서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 등을 탄압하였다.

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